

【에세이】

자살 위험군과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목회적 배려*

노 용 찬**

목 차

I. 여는 말	IV. 자살자 유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II. 목회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 고찰	돌보아야 하는 이유
III. 목회와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심의 욕구	V.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VI. 나가는 말 - 목회는 생명을 보듬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I. 여는 말

저는 자살자 유가족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지금부터 36년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나이가 선천계서 세상을 살아온 햇수를 넘어서면서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의 일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 모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살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문제요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살자 유가족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안고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현장에서의 경험이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일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 이 글은 그동안 썼던 필자의 논문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강의시간에 발표하였던 글들을 부분 수정을 하여 주제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 빛고을나눔교회 담임목사,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이사

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한 일들 중에서 제 가족의 경험은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만나면 그것에 더욱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언제나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했으며, 망자(亡者)보다도 그 유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실 경우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현장에서 겪는 가슴 아픈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어느 교인 중의 친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조문을 가보니 장례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문 예배도 없었고, 다니는 교회에서 찾아오는 교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더니 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단마다 교회헌법이 있고, 신학적 입장이 있어서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입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문화되었고, 대부분의 교단 목회자들은 그와 상관없이 경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1994년도부터 가족치료와 상담교육활동에 나서게 하였고, 또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활동에 나서게 되어 이 일에 관여한 지도 벌써 8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자살, 외도 등등의 문제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연예인들의 경우는 거의 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교인이나 가톨릭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II. 목회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 고찰

지글러(Franklin Segler)는 목회를 넓은 의미로 볼 때에 두 가지 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상적인 목회전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목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적인 목회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의 목회, 설교의 목회, 교육의 목회, 치료와 목양의 목회, 복음전도의 목회, 청지기 직분의 목회, 개혁의 목회가 포함되는데, 내향적 목회기능으로서 예배로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상대적인 조직의 평가와 교육과 신학에서 표현되는 생각하는 공동체로서의 목회적 기능으로 교회의 생명을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데 관련된 교회의 기능들과 외향적인 목회기능으로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의 기능으로 이는 세상을 향한 목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돌봄이라는 목회적 기능이 수행됩니다. 즉,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돌보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클라인벨(Howard Clinebell)도 자신의 저서 「목회상담 신론」에서 목회의 통일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영을 핵으로 한 인간의 전인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봉사, 사회활동, 복음의 선포, 예배인도, 교육, 목회와 상담, 교회 지도력과 개발, 그리고 평신도 훈련이 속하는데, 이 모든 기능들은 성장과 치유의 도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클라인벨의 목회에 대한 설명은 구약성서로부터 시작된 목회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전통이란 바로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ance), 화해(reconciling) 등입니다. 이 전통은 클렙쉬(William A. Clebsch)와 재클(Charles R. Jackle)이 앞서서 종합한 것인데, 이들은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치유란 한 인간의 전인건강을 회복시킴으로서 그리고 그의 이전 상태보다 나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목표를 둔 기능입니다.

지탱이란 한 인간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나 그의 병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요원하게 생각되는 그런 형편을 참고 견디고 초연하도록 그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인도란 어떤 선택이 그 인간의 지금과 미래의 상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될 때, 그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서 생각과 행동이 여러 가능성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란 “한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클라인벨(Clinebell)은 이 네 가지 기능에 한 가지 목회적 기능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양육(Nurturing)의 기능입니다. 이 양육의 목표는 “한 인간이 산전수전을 겪는 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부여(empowering)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힐트너(Seward Hiltner)에 의하면 목회적 기능의 핵심은 돌봄입니다. 그는 목회자의 기본 자세를 보살핌, 즉 고전적 성경의 비유인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찾았고, 교회의 목회는 궁극적으로 돌봄의 목회(caring ministry), 즉 교인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들을 살피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이즈(Carroll Wise)는 힐트너의 개념을 이어받아 기독교 목사란 바로 “그의 인품 속에서도와 사람들과의 생동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폭넓게 발견되는 존재의 질 같은 것을 중재해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 용서, 치유가 있게 되고, 이것들은 인간 존재의 기반을 넘어서 인간 실존의 핵심에까지 도달하며, 이 관계로부터 매일 매일의 삶을 가능케 하는 힘과 통찰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목회적 기능과 영혼의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신 일, 돌보시고(caring), 치유하시고(healing), 가르치시는(preaching) 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와이즈는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이 목회적 돌봄이 이론적이지 아니라 생동하는 관계이며, 존재의 문제이며, 목회자와 신도 사이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특질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기에 “돌봄”(care)은 곧 관심을 의미하고, “목양”(pastoral)은 그 관심의 깊이와 방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겪는 출생, 결혼, 직업, 예배, 이별, 죽음 등의 문제들과 같은 생활상의 위기들을 다 경험합니다. 즉, 목회자는 성도들과 상당히 정상적이며 평범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생활상의 위기경험에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III. 목회와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심의 요구

토머스 조이너(Thomas Joiner)의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화 해 보면 소속감의 단절 + 짐이 된다는 느낌 + 자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면서 결국에 자살이라는 자기살해에 이르게 된다는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 개신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자살 충동 및 계획 경험자는 19.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로움(34%, 가정불화(24.6%), 경제문제(19.2%), 병(15.1%), 직장문제(7.1%)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 왜 자살 혹은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자살자 유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저런 이유로 자살충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36명에 이른다는 통계인데,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가족 중에 자살을 한 가족경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가족 중에 자살을 경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자살자 유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인 이유로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이나 혹은 가족비밀로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을 비밀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고통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목회가 영혼의 돌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 안의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IV. 자살자 유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목회적 배려의 문제입니다. 모든 교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목회적 돌봄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 특히 자살자 유

가족에게 목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치유되어야 할 마음의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했다는 상실의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지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치유되기 힘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선친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난 거의 2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심지어 가족들과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다가 깨어 깜깜한 밤을 혼자서 뒤적이며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의 장면들이 시시때때로 눈앞에 선하게 드러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둘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은 생존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은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 등등의 생각에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친구와 웃다가도, TV를 보며 재미있어 하다가도, 여행을 하다가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곁을 떠난 가족 생각에 금방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셋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 비밀 때문에 극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온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추어야 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이 탄로날까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경험한 가족, 예를 들면 이혼, 자살, 범죄, 정신질환 등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되고,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도 삶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과 그러할 경우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자 유가족의 자살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일어난 모 유명 연예인의 경우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나가 자살하고, 그 전배우자가 자살하고, 남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다섯째, 자살자 유가족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전세계 인구의 20%가 일생에 한 번 정도 우울증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이나 혹은 어떤 질병에 의한 내적인 원인이나 성장발달과정이나 여성들의 경우 생리적인 호르몬 변화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살자 유가족들이 겪는 우울증은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과 앞에서 열거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살자 유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면 많을 것입니다.

V.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목회적 배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장제일주의, 성공신학, 영적 공로주의 등등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목회는 한 영혼을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목회자 자신이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1992년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셀(Charles Sell)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때, 미국의 목회자의 경우 60% 이상이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trauma)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인아이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때에 정서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영적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 상담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자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성공지향적이거나 권력 지향적이거나 공로나 업적지향적이거나 심지어 성적 일탈이나 성적 비행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여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학대를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삶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경우만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약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의 능력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만 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놀랍게도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문제나 질병이나 혹은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여겨서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편견과 정죄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경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교리적 잣대로만 보려고 하다 보니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가족의 경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을 통하여 자살에 대한 신학적 질문과 답변들이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살은 많은 죽음의 유형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또한 많은 죄의 유형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비켜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목회자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만 전 교육방송에서 2부작으로 “삶과 죽음의 그래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코노사이드”(econocide)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코노사이드”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와 죽음 혹은 살해를 의미하는 사이드(cide)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면 1928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대공황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사태 때 자살률이 급속히 높아졌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11년부터 2012년의 2년 동안 그리스 자살률을 분석했을 때 정부 지출이 1% 감소할 때마다 자살률이 0.43% 증가한다는 통계적 결과를 소개하면서 개인의 자살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 죽음의 원인 중 자살이 1위이고, 노년층의 자살과 청장년층의 자살의 원인도 분석해 보면 질병과 경제적인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종종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자살의 경우는 더욱 직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뒤르켐(Emile Durkheim)이 암시한 바와 같이 자살의 원인과 형태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마지막 넘어가야 할 문지방 같은 관문이라면, 이 죽음과 그 한 형태인 자살에 대한 이해 역시 살아가는 것만큼 깊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심리정서와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목회는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과 이해입니다.

다섯째는 목회자들의 설교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동안 유명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교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설교,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좋은 일들보다는 삶의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짐을 또다시 지우는 설교보다는 그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설교나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말씀과 사도들의 설교말씀을 살펴보면, 삶의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교인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상황(context)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여(text)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용기를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목회자와 교회 안에는 구체적인 영혼을 돌보는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6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교회 안의 가정사역프로그램들과 상담치유코칭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많이 알려지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마다 상담코칭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수많은 상담치유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교회의 현실을 보면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나 프로그램들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의 인식부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회자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기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중심의 그룹(content-oriented groups) : 여기에는 성경공부 그룹이나 혹은 성경토론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과업중심의 그룹(task-oriented groups) : 여기에는 교회 사역을 위한 위원회나 혹은 기획위원회, 전도를 위한 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과정중심의 그룹(process-oriented groups) : 여기에는 돌봄을 위한 그룹, 지원그룹(support group)이나 성장그룹(growth group)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이나 자살자 유가족과 같이 삶의 과정에서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룹입니다.

욕구중심의 그룹(need-oriented groups) :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복그룹(recovery group)이나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그룹, 독신자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교인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위기를 느끼거나 혹은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와 상담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목회자를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0%가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VI. 나가는 말 - 목회는 생명을 보듬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와 교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나아가 가족구조와 가족역할, 그리고 가족기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정

과 결혼과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간의 윤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량화된 사회의 영향으로 도심의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많은 교인들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귄은 사라지고 극히 개인화 된 신앙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점차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인들의 가정 환경의 변화가 가중되어 현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거나 내면으로 보면 허약하여 뚜렷한 신앙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비대하나 무기력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변화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던 목회에서 다시 유턴하여 영혼의 돌봄을 위한 생명을 보듬는 목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듯이, 교회와 목회자 역시 급변하는 물질만능과 인간소외의 환경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교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더욱 적극적인 생명 돌봄의 목회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삶의 희망을 북돋아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자 유가족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